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하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Q1

온라인 환경에서는 글로만 소통하게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고 활동하게 됩니다. 서로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실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표현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속성을 무엇 인가요?

A1 비대면성

설명 :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온라인 문화의 특성인데,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더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유익한 유튜브 채널도 많지만, 어떤 채널의 경우는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남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무분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통해 금전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처럼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동원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A2 주목추구성

설명 : 인터넷에서 정보는 무한하고, 유사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시한 정보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조회수 등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으로 주목추구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내가 공유한 그 사진〉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본 것처럼, 온라인 환경에서는 유머로 소통되는 밈 (meme)이 있어서 재미로 이러한 밈들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합니다. 밈은 때때로 실제 주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포착된 장면을 활용하기도 하고, 밈에 활용되는 개인 사진이나 정보가 있어도 이로 인해 오히려 유명해져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괜찮을까요?

A3 X

설명 : 순간적으로 지나간 장면이 캡처되어 밈으로 쓰이면서 주변인들이 놀림감으로 삼는 등 해당 개인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오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밈의 유행이 빨리 끝난다고 하지만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어떤 계기로 다시 유행하게 되기도 하므로 한 번 밈으로 유통되는 개인의 삶은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이용한 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